누군가 다시 만나야 한다면

(눅17:11-19)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누군가 다시 만나야 한다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누군가 다시 만나야 한다면'
이 제목은 시인 원태연 씨가 쓴 시의 제목입니다.
이 시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너무 잘 부합이 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여전히 너를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한다면
당연히 너를

다시 누군가를 그리워해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또 너를
허나 다시 누군가와 이별해야 한다면
다시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면
두 번 죽어도 너와는 …

이별을 해야 된다면 다른 누군가와 다른 무엇과 이별을 할지언정 너와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열 명의 나병환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가다가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상황을 알게 됩니다.
뭐 그걸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손톱마디가 다 짓물러서 떨어져나가고, 코 눈 이런 게 다 썩어가고 있던 상태니까, 깨끗해짐을 받은 것이 명확했을 것입니다, 긴가민가 할 필요가 없고.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을 필요도 없이 깨끗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추수감사절 때마다 감사의 주제로 설교가 될 때마다, 설교본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본문의 주제가 감사가 아니에요.
문둥병과 같은 불치의 병(그 당시로서는)이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해서, 그런 큰 은혜를 입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 본문에 그렇게 실릴 수 있는 그런 주제와 핵심내용의 본문이 아니더라는 얘깁니다.
굳이 주제를 말하자면 감사라기보다는 그리움 쪽입니다, 그리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느냐?

누군가를 다시 만나야 한다면 누구를 만나겠느냐 라는 걸 묻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 질문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인가,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열 명의 나병환자가 뭉쳐 다닌다는 것이 참으로 특기할만한 사실입니다.
아홉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지역이었으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다가 거절을 당하시는 바람에 동쪽의 베뢰아 쪽을 거쳐서 돌아서 가시는 중이었으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사람 말고 나머지는 다 유대사람일 수밖에 없죠.
이 열 명이 뭉쳐 다닌다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에요.
사마리아사람과 이 아홉 명의 유대인이 뭉쳐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뭉쳐 다니니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지금 왜 뭉쳐 다니는 것입니까?
나병에 걸리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애인, 그리고 부모님, 자식, 직장, 그리고 친구, 모든 것으로부터 생이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보통 때 사마리아사람을 개처럼 취급해서 상종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지마는 유대인이라고 내세울만한 특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사회로부터 완전히 쫓겨났기 때문에, 격리되었기 때문에, 생이별을 강제로 해야 했었기 때문에, 무슨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질만한 게 어디 남아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의 문둥병,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선택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리는 천벌을 받고 문둥병자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 유대인 됨을 자랑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창피하지요, 선민인데도 천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사람과 어울려서 특별히 상처 날 자존심, 자부심이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같이 다니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격리에요, 격리.
강제 이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사람과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특징도 없고 사마리아인 됨의 특징이 없으니까.
사마리아인도 그 사회로부터 쫓겨났으니까.
자, 이렇게 격리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열 명이 멀리서서,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멀리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갈 때, 전부 다 진짜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런 마음이었겠느냐?
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면 깨끗한 몸이 되어 있겠지, 라고 믿는 마음으로 갔다면 아마 다들 돌아왔을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난 것을 그냥 '다 갈새…'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고 믿었다면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겁니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에는, 믿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 낫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신 것이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은 배은망덕함을 탓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격리된 자들이 마음속에 늘 그리움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격리될 때, 그 헤어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접촉하면 그들에게 나병이 전염되어서 어쩔 수 없이 격리가 되지만, 뜨겁게 사랑하던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과 격리된다, 아내와 격리된다, 자식들 부모님들과 격리된다, 잘 나가던 사업장에서 격리되어서 쫓겨난다,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많이 맺혀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이제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이들에게 이 나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

니다.
그리고는 다들 뛰어간 거예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로 이 원태연 시인이 쓴 시의 질문과도 같은 것이에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면, 누구를 만나러 가겠느냐?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보고 싶었던 그 존재를 그 대상을 만나러 뛰어간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애인이라면 애인에게 갔겠지요.
깨끗해졌으니까 제일 먼저 보이고 싶고, '내가 깨끗하게 회복되었어!' 할 때,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사회로 회복되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게 누구냐 이 겁니다.
그 대상을 만나러 다 간 거예요.
당연하지요, 당연해요.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사람은 왜 돌아온 겁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은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나병이 당시의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그 상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천형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쉬워했던 것은 가족과의 이별, 사회와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이었지, 하나님과의 격리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아쉬워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는 이 사람이 그리워할 만한 이 세상의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고 부모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형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가장 마음에 아파했던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가장 마음 아파했고, 하나님과의 격리상태를 가장 깊이 한 맺혀 했다는 얘깁니다.

이때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은 천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천벌을 내리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격리되어 있었구나, 라는 걸 제일 마음 아파했던 이

자가 나병이 깨끗함을 입자마자, 이별했기 때문에 제일 마음 아팠던 그 대상,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고칠 수 있는 나병을 고쳐주신 그분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그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격리된 것이 가장 마음에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영광, 이것은 조명이에요, 조명.
깜깜한 극장 안에서 무대 위의 배우가 연기할 때, 배우에게만 조명이 비춰지면서 배우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조명을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세상 경주에서 1등 했을 때, 2등 3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각광을 1등 한 자가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하신다는 얘기에요.
애인이 보고 싶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혹은 부자가 되는 상태, 그곳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늘 부자를 그리워하고 그 부자가 못 된 것을 마음 아파하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했을 수도 있지요.
이 모든 그리움의 대상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1등 했다는 얘깁니다.
내 그리움의 대상 중에서 하나님이 1등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감사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하나님이 연결되어있는 자리이신, 아직 그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인 이 나병을 어떻게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1등이었다는 얘깁니다.
하나님만이 조명을 받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많은 그리움의 대상이 있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많은 대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1등인 상태에서 돌아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물으심은 이겁니다.
다른 아홉 명은 분명히 천벌인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있음이 극복되었는데, 누구를 그리워했기에 어디로 다 가버린 것이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만이 보이는 조명 빛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조명이 그들의 아내에게로 갔다는 말이냐, 그들의 자식들에게로 갔다는 말이냐, 결혼 안 한 청년 같으면 애인에게로 갔단 말이냐, 사업하던 사람이었으면 부자가 되는 그런 상태로 갔다는 말이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격리된 상태를 극복하고 다시 만나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에 의해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만나고 싶은 대상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사마리아사람에게 하신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그리움이 제일 먼저 모든 그리움의 대상을 다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이 1등으로 나의 그리움의,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껴안고 싶은 그리움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용서하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너희 힘으로는 못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한 모든 행동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 하늘보좌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뛰어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

기 위해 한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대상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움의 대상들이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실지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겨자씨 같이 작은 일인데, 그리움의 대상이 다 이 땅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대신에 주님을 내 인생으로 끌어당겨버립니다.
주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격리되어 있는 존재나 상태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자 상태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건강상태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가정의 평화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격리상태를 극복해달라고, 나병환자처럼 격리돼있는 이 상태를 극복시켜 달라고 주님을 당기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주님이 만들어놓으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 공항 길 같은 하늘보좌 길을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원태연 시인의 시 하나를 더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제목은 뭐냐 하면 <필요 없어진 준비>입니다.
참 쉽고도 공감이 가는 시에요.

그대와 헤어지면 흘리려고 많은 눈물 준비해두었는데
그대와 헤어지면 위로받으려고 많은 친구를 준비해두었는데
그대와 헤어지면 보내려고 많은 편지를 써놓았는데
어쩌면
한 방울 눈물도 없고
만나자는 친구도 피해지고
써놓았던 편지도 찢어버리고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아! 참,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편지를 많이 써놓았어요, 보내려고…

그런데 진짜 헤어지고 나니까 편지를 보내는 일조차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힘도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헤어져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나가는 겁니까?

헤어져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지는 듯이 느끼고, 껴안는 듯이 느끼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있지 않는 헤어짐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기를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원기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늘아버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늘아버지와의 격리 상태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눈물조차 흘릴 수 없어야 정상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가서, 주님과 함께 하늘보좌 길 달려가서, 우리 아버지를 마음으로 느끼신 다음에 그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친구가 전화를 해도 만나기 싫고, 써놓은 편지를 보낼 힘도 없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헤어져 있음에 우리의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그리움이 다 몰려와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